

광주·전남 추경 3036억 확보…지역 현안사업 ‘탄력’

市,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994억
모빌리티 AX실증랩 등 대거 포함
道, SOC·에너지공과대 등 2042억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지원 증액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편성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요 현안들의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경에 시가 요청한 핵심 현안 사업 994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 추경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 715억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11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비 복원 183억원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포함돼 지역 교통난 해소와 산업단지·물류기지 접근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복원된 동광주~광산IC 구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열린 시민 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의지를 밝히며 다시 지역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광주시는 정준호 의원 등과 협력해 예산 부활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367억원의 절반가량인 183억원을 복원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연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4차선 도로가 6~8차선으로 확장돼 병목 구간 해소는 물론, 용봉IC 개설로 제2순환도로와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광역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사업’ (20억원), ‘AI기반 창의문화공간 플랫폼’을 채우는 AI콘텐츠 개발(10억원) 등 AI 확산사업 예산과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20억원), ‘국가생산성혁

신기반 구축사업’ (3억원) 예산 등은 추가로 담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다만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10억원은 삭감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시범도시 유지를 위한 마중물로 주목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새 정부 민생 중심 추경 기조에 따라 지역사업 예산이 일괄 삭감되면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여야의 막판 쟁점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 예산도 최종 반영됐다. 소비쿠폰은 소득 기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이 지급되며, 상생카드는 기존 8%였던 할인율도 최대 13%까지 확대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골목경제 상황실’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운동’ 등 민생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12개 사업, 총

2042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1460억 원이 반영되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대형 교통망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운영 출연금 100억원도 포함돼 학사운영과 연구시설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60억원 반영돼, 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기반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 위기 대응 분야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여수국가산단의 구조 불황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산업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 37억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52억원으로 증액됐다.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대응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국회 부대의견으로 포함되는데 성공하며 연내 추진 가능성을 마련하는 등 항공사고 여파로 침체된 지역 관광에 대한 회복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양 시·도는 이번 추경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

응 전략을 조기에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 고도화와 지역소비 진작을 본예산 요구의 핵심 축으로 삼고 ‘AI총괄정책자문관’과 ‘빅데이터총괄정책자문관’을 신설하는 등 ‘AI 국가 시범도시 광주’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추경은 광주의 교통망 개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회”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교통환경과 더 활기찬 지역경제, 더 많은 일자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 또한 “지금이 2026년 정부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시군과 함께 국고 확보 전략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정성아 기자

전남도,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준비 착수

10월 ‘빛과 철로 물들다’ 주제
추진 계획·세부 상황 등 점검

전남도가 오는 10월 전남의 풍경, 맛과 멋, 문화를 스크린에 담아낼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의 막을 올리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 추진 계획과 분야별 세부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최수중 남도영화제 집행위원장,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장, 김정완 광양시 부시장, 전남영상위원회 관계자, 문화예술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행사 전반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공식 행사 운영, 상영관별 관리계획, 홍보전략, 안전관리와 관람객 편의 대책 등 분야

별 세부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개막식과 부대행사 준비상황을 비롯해 교통·주차 대책,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기관 간 역할과 협조 체계 점검에도 나섰다.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영화 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남도영화제가 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은 ‘빛과 철로 물들다!’를 주제로 오는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광양시민광장&야외공연장, 광양항, 전남도립미술관, CGV광양, 광양문화예술회관, 5개소 8개 스크린에서 20개 나라 65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광양 촬영 천만 영화 특별전과 토크콘서트, 전남 출신 감독과의 대화, 미술관 특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광역시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위촉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4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제3기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광주시 제공

광주시 전 직원, 골목상권 소비촉진운동 전개

골목형상점가 매칭데이 운영
월2회 점심 식당 이용·장보기

광주광역시가 이재명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기조에 발맞춰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와 골목형상점가 식당 이용을 통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매칭데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행정국 5개 부서 100여명의 직원이 4일 첫 매칭데이를 진행, 점심시간에 서구 쌍학로상인회, 5·18역자 골목상인회 등 골목형상점가 식당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식사를 했다.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골목형상점가를 이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현재 정부의 비상경제점검 TF와 연계해 ‘골목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골목경제상황실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235개 상권에서 일대일 매칭을 통해 장을 보거나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등 소비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7월 정례조화’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5개 자치구별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10곳에서 간식을 구매해 제공하는 등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탰다.

또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 휴무를 확대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구내식당 휴무는 그동안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경제 활성화) 석식에 적용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월 2회 중식 휴무로 확대했다.

정성아 기자

9~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0여개 기업 기술 등 선보

광주광역시가 최신 에너지 기술과 다양한 환경보호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을 연다.

광주시는 오는 9~1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전시회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ESS △배터리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환경신기술 △자원순환 △ESG 등 12개 분야 200개사 이상의 기업

이 참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다양한 환경보호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기간 중에는 주요 참가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라운드 프로그래밍’을 운영하는 등 바이어와 기관 관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시를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상담회인 ‘동반성장페어’는 대기업·공공기관 80여개사, 중소기업 130여개사가 참여해 기업 간 매칭, 사례발표, 정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OTRA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한다. 전시장 내 스투디오를 조성해 참가기업들에 제품 사진 촬영과 온라인 수출플랫폼에서 상품등록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설명회, RE100 이행전략 세미나 등 정책과 산업을 잇는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포럼과 세미나도 다양하게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사무국(062-611-229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매력은 ‘넷제로 마켓(Net-Zero Market)’이라는 시민 체험형 행사다. 기업과 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야생동물 사진 전시회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천연 수제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을 정성껏 준비했다”며 “에너지와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과 비즈니스 기회 제공의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